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골 1: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셨다(마 5:11-12). 교회를 위한 고난은 곧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다.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전했고 거기에 무엇을 첨가할 것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의 고난에 부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그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그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도 당해야 할 것이다(행 14:22; 계 6:11).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것은 그가 당시에 벌써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과연 그는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자기가 당한 많은 고난을 자세히 간증했다(고전 4:11-13; 고후 1:8-9; 6:4-5; 11:23-27).

[25-27절]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으이코노미야)적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이룬다는 뜻이라고 본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구

약시대에는 감취었던 바이었으나 이제 밝히 증거되고 있다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나, 지금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9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비밀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임을 나타낸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마 24:30), 죽었던 성도들은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고전 15:42-44; 빌 3:20-21) 영광스런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이다(계 21, 22장).

[28-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드리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役事)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본문은 목회의 핵심과 목회의 목적을 보인다. 목회의 핵심은 설교이며,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한다. 또 목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세운다’는 원어(파리스테미)는 ‘드린다’는 뜻이다. 목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완전한 자를 만든다’는 말은 칭의(稱義, 의롭다 하심)와 성화(聖化, 거룩하여짐)를 다 포함한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는 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된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

아서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10, 14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고 온전케 되었다(완료시제).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聖化)의 진리이다. 성화는, 칭의와 함께, 설교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성경과 교회의 일차적 목적은 칭의를 위한 것이지만, 이차적 목적은 성화를 위한 것이다. 칭의는 성도에게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주며, 성화도 그것 못지 않게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더해준다. 성도는 거룩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를 것이다(롬 6:22).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릴 것이다(마 3:8-10).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7, 26).

29절의 ‘역사를 따라’라는 원어는 ‘힘을 따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애쓰며 수고한다’는 뜻이다. 본질은 목회의 힘과 수고에 대해 말한다. 목회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목회자는 그 힘으로 설교하며 목회한다. 그러나 목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편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 다른 일들과 같이, 목회도 충실한 노력과 수고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달란트 비유(마 25:14-30)나 마나 비유(눅 19:11-27)는 복음의 일꾼들이 게으르지 말고 충실하게 일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심령과(진통사본)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전념]하라”(딤후 4:12-13).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해졌고 온전케 되었다. 이것이 칭의(稱義)의 진리이며 복음의 중심 내용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요 자유의 근거요 담대함의 원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실제로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들은 지식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진리이다.

둘째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충실하게 애쓰며 수고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주 안에 사는 자들은 결코 낙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애쓰며 수고해야 한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 예수께서 항상 공급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 이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때가 되면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성도들은 그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되며 영광스러운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런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

주일오후설교

여섯째 나팔

[계 9:13-15]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金壇)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금단(金壇)은 향을 사르는 금향단을 가리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며 금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정하신 종말 사건들은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다.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를 통과해 페르시아 만으로 흐르는 강이다. 그 주위에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한으로 억제하고 있던 것을 풀어주라는 뜻이다. 그것은 중동 지역이 세계대전의 격전지가 될 것을 암시한다. 중동은 전 세계의 석유의 주 공급원이며 게다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만하다.

장차 유브라데 강 주위에서 일어날 세계대전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정확한 연도와 월일과 시각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세 전에 다 아실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셨다. 전쟁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중동에서 일어날 거대한 세계대전도 그러하다.

그런데 그 전쟁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매우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암시한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도 참혹한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은 약 천만명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은 약 1,700만명이었고 민간인까지 합하면 약 5천만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질에 예언된 이 전쟁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할 매우 참혹한 전쟁이다. 2020년 세계 인구가 약 78억명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넷째 인으로 4분의 1이 죽으면 약 58억 명이 남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약 19억 명이 죽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전쟁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류가 수많은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차 세계대전은 화학 무기(독가스)와 생물학 무기(세균)와 핵무기(원자폭탄, 수소폭탄)를 사용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어느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구 소련의 의학연구소장 리콜라이 볼로킨은 핵 군비축소에 관한 과학자 회의 연설에서 “핵전쟁이 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는 핵암으로 쓰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¹⁾ 그의 말은 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가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16-19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향빛 홍갓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거대한 세계대전에는 2억명의 군인들이 동원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는 말은 그 수가 실제적 수임을 보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여전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 또 이슬람교 신앙으로 단합될 아랍 국가들의 총인구를 생각한다면, 중동에서 발발하리라고 예상되는 이 세계대전에 참여할 군인들의 그 거대한 수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인구 78억명 중 미국이 약 3억 3천만명, 유럽연합이 약 5억명, 러시아가 약 1억 4천만명, 중국이 약 14억 3천만명, 아랍연맹이 약 3억 2천만명이다. 이 세계대전에 동원될 현역병과 예비군의 수는 매우 클 것이다. 또 본문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묘사한다. 그 군인들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향빛 홍갓으로 무장했고 그들의 무기들은 불과 연기와 유향을 내뿜을 것이다. 그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 말들의 힘이 그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그 전쟁 무기들이 전방과 후방에 화력 발사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20-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銅)과 목(木), 석(石)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앙보다 더 슬픈 사실이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대환난 시대의 환난들과 재앙들의 목적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죄인들의 교정과 회개를 위함이 아니다. 택함 받은 죄인들은 이미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환난과 재앙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노뿐이다. 그러므로 6:16-17에서는 이것을 ‘어린양의 진노’, ‘그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불렀고, 8:13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두고 화, 화, 화라고 표현하였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리시는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무슨 죄 때문인가? 로마서 1:18 이하에 언급된 대로 불경건과 음란과 불의의 죄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불경건의 죄 가운데는 성경말씀대리가 아니고 인본적, 세속적 방법으로 목회하는 목사들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행위들도 포함될 것이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큰 전쟁의 불행을 통과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재앙을 당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

1) 조선일보, 1983. 5. 19.

하는 자에게 과연 회개할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행 11:18).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들 때 회개해야 한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때이다. 우리는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할 때에 즉시 회개해야 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했다(사 55:6).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장차 세계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세계대전은 지구의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대량살상무기라 부르는 화학 무기(독가스), 생물학 무기(세균), 핵무기(원자폭탄, 수소폭탄)를 사용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이다. 대한년의 여러 징조들과 세계적 전쟁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정직하고 선하게만 살고 그가 약속하신 영광스런 천국과 부활과 영생만 사모해야 한다.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되고 헛된 세상이며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불타버릴 장망성(將亡城)이다. 우리는 오직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시 회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영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수요일 설교 **진실과 화평을 행하라**

[속 8:14-15] [이는]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일으켰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뜻하였음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근거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16-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첫째로, 그는 그들이 각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과 화평을 교훈하신 것이다. 진실과 화평은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18-19절]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사월의 금식과 오월의 금식과 칠월의 금식과 시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유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했으나, 이제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다.

[20-23절]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여러 백성들’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 ‘언어가 다른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며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 많은 백성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계 7:9).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항상 감사해야 하고, 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항상 진실하게 말하며 판단해야 하고 또 항상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라도 남을 해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악을 다 버리고 진실과 화평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해하고, 땅끝까지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